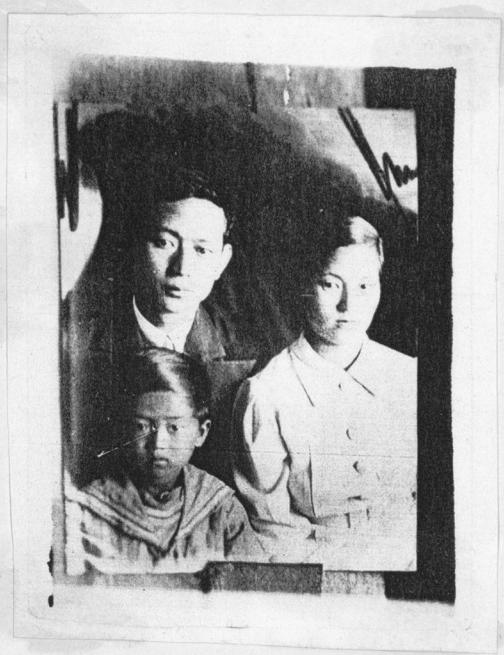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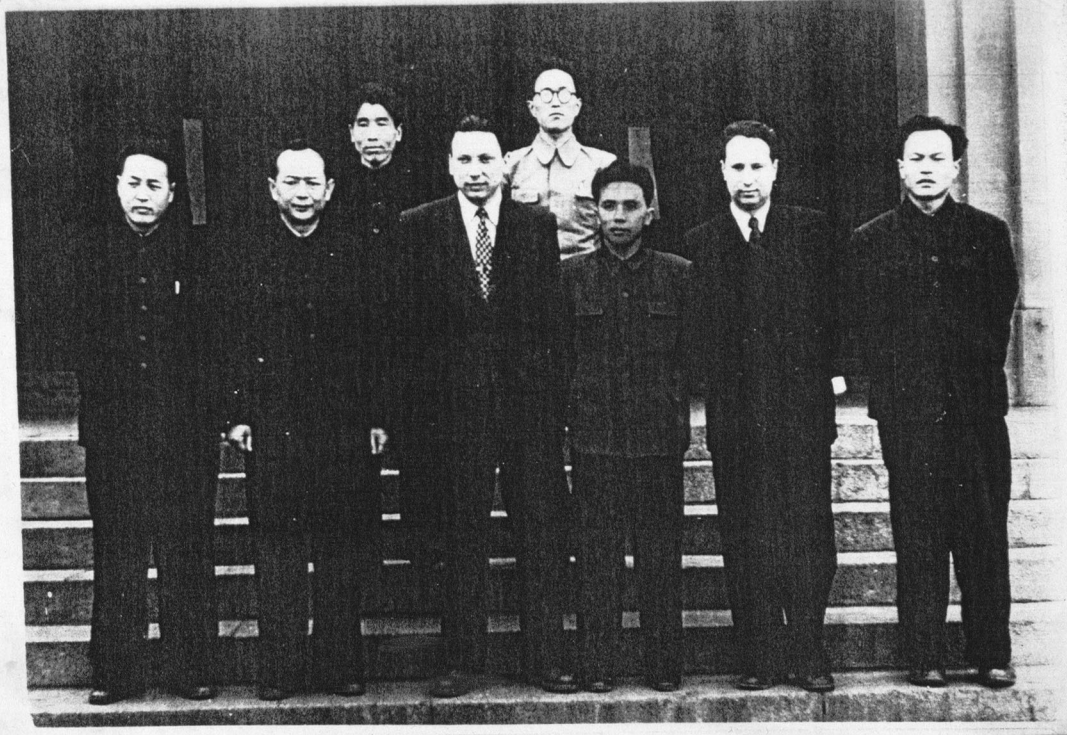
3



송영현 선생님

송영현 선생은 1908년 5월 24일에 원동
 변강 한광도시인 우청시, 현재 북한시라고 부르는
 근노재리에서 탄생하시었다. 송선생은 함흥에서
 초학교를 다녔하신 다음, 함흥에서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신명동에서 초중을 다녔하시었다.

가정의 경제 형편에 의하여 계속 공부를 못하시고
 원동 울라지외보코시 어업기술소에서 로동자로 1924
 년부터 1930년 까지 일하시었다. 1930-1931년
 에는 원동변강 니콜스크시 협동조합에서 생산부장
 일을 하시어, 1931년부터 1933년 까지는 원동변강
 하바롭스크 시에서 농촌정리 고급당 학교를 졸업
 하시었다. 고급당 학교를 다녔하신 다음에는 1933-
 1935년 까지 아레리하미드잔 공화국 렌끄란시
 에서 건설관리국 지도원으로 일하신 다음 다시 원



사진은 1948년에 아직 북한 지역에 조선공문선 생클이 개설 당시 관리국 책임 간부들과 같이 촬영한 것이다

동변강 하바름보크에 돌아와 시중양종함씩로
품매집에서 1934년, 뮌헨으로 복귀의 전제 한
인로리 강제 어루때까지 일하시였다. 강레이
후 당시 농선생은 유로백한, 하뉴게는국 양기을
시에 도착하게 라였 언바 여기에서 농선생은
안리 을시 품매집 공양창고장으로 1945년 9
월에 북한에 파견리여 가실때까지 일하시
였다. 농 선생은 1945년 12월에 북한에 도착
하여 처음에는 로마네고 빈전사령부에서 홍역원으로
일하시다가 북한에서 인공개성역이 실시된후 1946
년 8월부하 1955년 6월까지 상업성로서
판예 관리국 장으로 일하시다가 사상검호에

시 비판을 받은 다음 체신성 유선 전속부 부부장으로
 강직되었다가 1957년 12월까지 일하시다가 19
 58년 2월에 소련에 다시 귀국하였다. 송영현선
 생도 역시 다른 소련출신간부들과 유사하게 한가지 같
 은 품목으로, 소련가동주의, 소련화 허가어와 박창목
 등 동지들과 가까이 지냈다는 것다, 사대주의나, 관료주
 의나 하는 명목으로 해방 강직당하였던 것이다. 송선생
 은 주로 체신성에 남아있어서도 계속 사상검토 비판을 받았
 던바 그 당시 체신상, 부상들이 다 한강소에서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 체신성 과장급에 있는 양기연이란 사람은 자기
 상의 비판을 치면서 왜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하지 않
 는가 하고 구타하는 야만적 행사까지 하는 것을 보고
 "이런 야만적 나라에서 어떻게 더 살수없으랴" 하고
 한탄하면서, 조국이 점점 검은 어둠하리든 하리만 떠나
 야 되겠다곤 결심하고 다시 이국에 귀환하였다.
 송선생은 소련에 귀환하여 모스크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의 숙속을 결의 어전에 북한에 가서기전
 에 산악에서 일하시던 유르겐한 다슈겐츠에 도착
 하여 아이들의 공부문제, 주택문제, 일차리 등 문제들을
 해결받은후 약 3개월간은 일에 착수하리 아니
 하고, 개각은 공화국 알바다, 다직공화국 두산베,
 및 라잠까지 등지에 돌아 다니며 자리철구들을
 방문 할겸 행어나 어느 곳이 살기에 더 적합하겠
 는가 하는 것을 돌아 보았다. 여러 곳을 돌아 보면

우르벡 공화국이 제일적당하다로 결를 정한 우르
 벡 공산당 중앙위원회 조령부에 일차리 문서를 접수하
 여 다뉴켄트주 도서에에 판타국 다뉴켄트지구 지배인
 으로 임명되어 1958 년부터 1983 까지 일하시어
 다음엔 다뉴켄트주 해고와는 구역에 주재하여 있는 해재
 배 국영 농장 복지배인으로 1980 년까지 일하시어 다음
 60 년의 큰 공로이력으로, 공로있는 큰 공로이력으로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후생하게 되었다.

송 선생은 1931년에 조선 공산당이 임당하였으니, 19
 33년에 몰타리위스도크 시에서 김철로인 나에 강가
 들어 아들 형제를 훌륭하게 성장시켜 사회에
 출세 시켰다.

장남 송 게오르기는 현재 알바니아 현극장
 에서 유명한 가수로 일하고 있고, 차남 송 보리스...
 는 다뉴켄트에서 비스네스를 하고 있다. 아들 형제
 는 현재 열성적으로 조국흥일 구국전선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특히 장남 송 게오르기는 가무단의 공연자로 우
 차 남한에 간여왔다.

송영현 선생은 북한으로 넘어오신후 1대 일꾼이 조국
 흥일에 위하여 열심하시면서 흥일권 조국을 기다리다가
 1987년 8월 16일에 다뉴켄트에서 별세하시었다.

장남 송 게오르기 재물어 기호하여
 장남 송 게오르기
 2012. 11. 1.